

'94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모·금·의·밤



정대협 회원 및 후원단체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교역자회
대뉴욕지구변호사협회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대뉴욕지구노인상담소
대뉴욕지구원로성직자회
뉴욕크리스찬아카데미
한인교회여성연합회
뉴욕가정문제상담소
뉴저지한인총연합회

한인노인문제상담센터
저지시티노인회
뉴저지교회협의회
뉴저지북부노인회
재미한국부인회
좋은이웃봉사회
드라이크리닝협회
경제인협회
청과상조회
한인여성네트워크

한인 YWCA
뉴욕한인회
Y K A N
주류협회
네일협회
각언론사
(무순)

미동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The Korean-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 Inc.

낮 (718) 353-0226 밤 (212) 689-4113
(212) 679-3482 Fax (212) 481-9569

가정마다 10불 내어 정신대의 “피 맺힌 한” 우리가 풀어주자!



성금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Pay to the Order : KACJ

P.O. Box 630038
Little Neck, N.Y. 11363

성금계수
주소

* 성금은 한국일보 앞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정대협 활동기금 모금 현황

(1) 정대협 (주)정대협	\$ 304.51	2.22
(2) 정대협 (주)정대협	\$ 1,300.00	2.25
(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5
(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4
(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4
(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5
(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6
(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7
(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8
(1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29
(1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0
(1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1
(1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2
(1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3
(1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4
(1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5
(1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6
(1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7
(1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8
(2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39
(2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0
(2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1
(2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2
(2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3
(2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4
(2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5
(2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6
(2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7
(2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8
(3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49
(3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0
(3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1
(3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2
(3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3
(3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4
(3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5
(3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6
(3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7
(3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8
(4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59
(4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0
(4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1
(4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2
(4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3
(4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4
(4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5
(4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6
(4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7
(4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8
(5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69
(5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0
(5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1
(5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2
(5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3
(5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4
(5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5
(5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6
(5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7
(5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8
(6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79
(6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0
(6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1
(6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2
(6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3
(6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4
(6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5
(6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6
(6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7
(6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8
(7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89
(7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0
(7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1
(7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2
(7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3
(7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4
(7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5
(7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6
(7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7
(7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8
(8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2.99
(8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0
(8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1
(8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2
(8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3
(8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4
(8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5
(8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6
(8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7
(8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8
(9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09
(91)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0
(92)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1
(93)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2
(94)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3
(95)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4
(96)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5
(97)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6
(98)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7
(99)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8
(100) 정대협 (주)정대협	\$ 300.00	3.19

94년 정신대 활동 목표

- (1) 일본정부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저지활동
- (2) 피해 7개국 국제연합 공청회 개최
- (3) 일본 국내외 가해자 발굴작업
- (4)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투쟁
- (5)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미동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The Korean - American Coalition on Jung Shin Dae, Inc.

P.O. Box 38 Little Neck, N.Y. 11363

Tel. 낮 (212)679-3482, 689-4113 Fax. (212)481-9569

후원 : 뉴욕한국일보 · 뉴욕한국방송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기금 모금의 밤

주최: 미동부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시: 1994년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장소: Ramada Hotel at LaGuardia Airport

사회(MC): 이미경(미주 기독교방송 아나운서)

† 정신대 관련 VIDEO상영

† 개회(Opening Remark).....

김영호목사(실행위원, 뉴욕크리스찬 아카데미원장)

† 촛불점화(Lighting Candles)

- 생명: 정신대 할머니를 대변하여 박근순(실행위원)
탄식의 소리1
- 정의: 재미한인 1세를 대표하여.....홍인숙(실행위원, YWCA총무)
탄식의 소리2
- 평화: 재미한인 2세를 대표하여.....김영경(Columbia 대학원생)
탄식의 소리3

† 묵념(Observance of Silence for the Victims)

† 시낭송(Poem for the Victims).....

곽상희(실행위원, 해바라기 교육재단 대표)

† 기도(Prayer).....조덕현목사(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 식사(Dinner)

† 격려사(Message of Support)

- 김재택(뉴욕한인회 회장)
- 송인명(뉴욕상록회 회장)
- 이다옥(미주한인여성연합회 회장)
-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황미광(실행위원)

† 특순(Special Performance)

- 살풀이(Sal Pu Ree).....박운숙(실행위원, 뉴욕국악원 원장)

† 특별강연(Guest Speakers)

· 강사소개(Introduction of Speakers).....

김용환 변호사(실행위원, 변호사협회 이사)

특강 I

· Saul Kagan(Executive Secretary,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

· 제목: 유대인 대학살 가해자 처벌보상 어떻게 가능했나?

(How Did Jewish Victims Receive Individual Compensation from Germany?)

특강 II

· 박원순 변호사(Won Soon Park, Esq., 한국정대협 고문 변호사)

· 제목: 국제법에서 본 정신대 범죄와 처벌 가능성

(On the Question of Prosecuting Japanese War Criminals Responsible for the "Comfort Women's"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Law)

특강 III

·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Kenichi Takagi, Esq., 일본에서의 정신대소송 변호사)

· 제목: 일본내 정신대 관계 법정소송의 성과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fort Women" Lawsuit against Japan)

† 인사 및 광고.....변천수(실행위원)

† UN탄원서 낭독.....김현숙(실행위원, 가정문제상담소이사)

† 합창.....아리랑(Arirang), We Shall Overcome

† 폐회

† 알리는 말씀 †

- 이 귀한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강사님들과 기관, 교회 및 단체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정성어린 성금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푸는 구체적 활동, 연구, 출판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아직도 UN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자원자로 함께 도우실 분은
(212) 679-3482로 연락주시요.

정대협 활동기금 모금 현황

- 1994년 2월 23일부터 1994년 3월 25일 현재 -
(모금해 주신 날짜순)

경로회관(김광식 총장)	\$ 346.61
좋은이웃봉사회(송희연 회장)	\$1,000.00
중앙장 의사(하봉호 사장)	\$ 300.00
엘리트아카데미(권영대 대표)	\$ 300.00
김종필 박사(Mercy College)	\$ 100.00
선홍수신경대과	\$ 100.00
한미부동산(홍종학 대표)	\$ 100.00
가정문제연구소(래지나김 소장)	\$ 100.00
한국국악원(박윤숙원장)	\$ 100.00
금강산레스토랑	\$ 100.00
원즈프린팅(김기호 사장)	\$ 100.00
진고개전치집(안종여)	\$ 100.00
이강연(뉴욕한인회 선거위원장)	\$ 300.00
이문성(전 한인회장)	\$ 100.00
주명룡(23대 한인회장후보)	\$ 500.00
신혜수(정대협 국제위원장)	\$ 200.00
3·1절 행사시 모금(한인회관에서)	\$ 255.30
김자원(수필가)	\$ 50.00
유명희	\$ 50.00
Stationery Unlimited, Inc.	\$ 100.00
장미영	\$ 20.00
신만우(23대 한인회장후보)	\$ 500.00
영신양봉원(최지복 대표)	\$ 300.00
최광선산부인과	\$ 300.00
초원회관	\$ 300.00
손광문(변호사)	\$ 50.00
이성화(23대 한인회장 후보)	\$ 300.00
낙원미집	\$ 100.00
이화여행사	\$ 200.00
뉴저지 노인회(박정식 회장)	\$ 120.00
해병동지회	\$ 300.00
매일잔치집	\$ 100.00
이천구(New York Golf Center)	\$ 200.00
신진기(뉴욕산업인협회 회장)	\$ 200.00
한식구	\$ 10.00
이인용	\$ 50.00
황재훈	\$ 300.00
David K. Cho	\$ 10.00
Sam S. Park	\$ 10.00
이종원	\$ 10.00

정대협 활동기금 모금 현황

- 1994년 2월 23일부터 1994년 3월 25일 현재 -
(모금해 주신 날짜순)

KNJ Family Market	\$ 100.00
김주은	\$ 100.00
김수재	\$ 75.00
변호사협회(변대기 회장)	\$1,000.00
봉재학회(최수진 회장)	\$1,000.00
미동부예비역가톨릭교회(최의정 회장)	\$ 100.00
Met Food 동우회	\$1,000.00
원봉교	\$ 200.0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변원수 회장)	\$ 500.00
이화 Fashion(Sophia Cho)	\$ 100.00
백근순	\$ 100.00
재미한국부인회(이강세 회장)	\$ 100.00
우연수	\$ 100.00
김기동	\$ 200.00
조원지	\$ 50.00

3월 25일 현재 모금총액: \$ 12,124.91

모 금 목 표 액: \$100,000.00

↑ 특별히 도와주신 분 ↑

사무실 제공 : 광상회
행사 현수막제작 : 상아간판
교통편 제공 : 뉴욕 한인교회

- 가정마다 \$10 내어 정신대의 '피 맺힌 한' 우리가 풀어주자
- 모금에 참여하셔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푸는 일에 도우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 to the Order : KACJ

P.O.BOX 38

Little Neck, NY 11363

(212) 769-3482, 689-4113

일본은 정신대의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

과거 일제시대에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나라들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파묻힌 역사속에 잊혀버릴뻔 했던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인권유린 실상은 전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밝혀짐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미동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최근 「정신대 자료집」을 발간 (128면)하여 역사적 증언과 실증 중심으로 자세히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다. (권당 10불) 여기에 최근에 발표된 성명서를 게재한다.

우리는 과거 일본제국군대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던 정신대 여성들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 정부당국의 물결치한 변명과 은폐행위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먼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을 통해 전체 동아시아 민족들을 비참한 전쟁의 재앙으로 몰아넣은 전범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아시아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막강해진 경제력으로 또다시 「오만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당국은 그들의 침략전쟁에서 성노예의 희생제물로 삼은 한국과 기타 아시아여성들에게 이토록 사과 한마디나 보상에 대한 언급 하나없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난 반세기의 기간동안 수치와 고통으로 지내야했던 정신대 여성들의 회한을 푸는 일이 이제는 더이상 방관되거나 늦추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이들 정신대 희생자들의 삶에 대한 모욕 일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있어서 아니될 전쟁범죄를 묵인하게 되는 공범의 행위와 통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선포하고 적악의 사슬을 끊는 일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가 이 역사의 죄에 그저 침묵하고 있다면 그 죄의 수레말에 깔려 신음하고 있는 정신대여성들은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호소는 곧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갈구이자 교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대의 소리이다.

우리는 이제 이 역사의 비극에 책임져야 할 일본정부당국의 뼈아픈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우리의 이러한 요청에 고개를 돌리지 않기를 진실로 바라는 바이다. 이 회개를 통해 일본은 거듭 날 것이며, 인류는 그 회개의 열매로 평화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또한 국제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2차대전의 상흔을 마무리짓는 명예로운 작업에 그 열과 정을 쏟아 인류의 앞날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1992년 12월 1일

뉴욕교회협의회, 뉴저지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교역사회, 대뉴욕지구원로성직사회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November 3, 1993

His Excellency Morihiro Hosokawa
Prime Minister of Japan
6-1 Nagata-cho 1-Chome
Chiyoda-ku, Tokyo 100
Japan

Dear Prime Minister Hosokawa:

As members of the U.S. Congress, we welcome the Japanese Government's recent acknowledgement that the Japanese military was directly involved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military brothels (comfort stations) throughout Asia between 1932 and 1945. We consider it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admitted the use of "coaxing, coercion and other measures" to recruit many of the "comfort women." These are essential steps toward clarifying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We respectfully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additional steps to ensure justice for women who were compelled to work as prostitutes in the military brothels. Many of these women have alleged that recruiters used force or deception to deliver them to military brothels. Numerous reportedly suffered long after they escaped or were released from the brothels because the social stigma attached to sexual abuse turned them into social outcasts in their home countries.

A number of former "comfort women" have filed lawsuits seeking official apologies and monetary compensation. We urge you to ensure that the allegations in these cases are investigated promptly and impartially. We further urge your government to cooperate fully with the recently appointed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sexual slavery in order to provide a complete account of the "comfort women" policy. Additionally, just as it was important for the U.S. Government to decide in 1988 to extend long-overdue official apologies and to pay compensation to surviving American citizens of Japanese descent who were wrongfully forced into internment camps during World War II, we strongly urge your government to do the same for women survivors of forced service in military broth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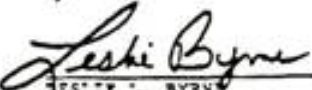
His Excellency Morihiro Hosokawa
November 3, 1993
Page Two

These steps cannot undo regrettable chapters of history, but will hopefully ease the continuing agony of the women survivors, pave the way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s, and enhance Japan's credibility as a major advocate of human rights world 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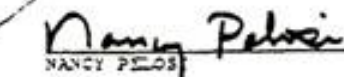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nd working with your new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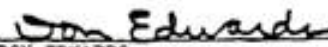
Since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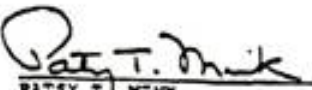

CONSTANCE A. MORE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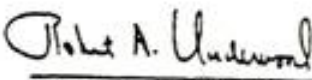

LESLIE L. BYRNES


NEIL ABERNETHY


NANCY PELOSI


DON ED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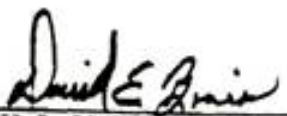

PATSY T. MINK


ROBERT A. UNDERWOOD


ROBERT T. MATSUI


WILLIAM J. JEFF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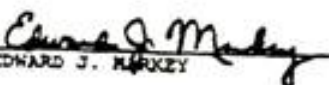

NORMAN Y. MIN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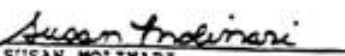

DAVID E. BO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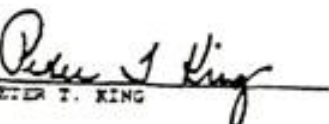

RONALD K. MACLELLAN


WILLIAM A. HUG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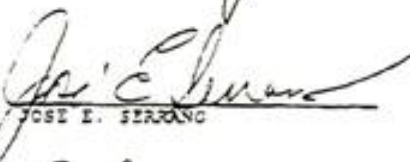

MICHAEL J. KOPET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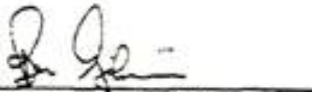

EDWARD J. MARKEY


SUSAN MOLIN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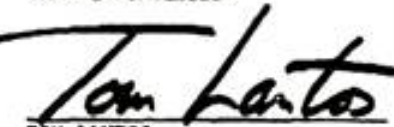

PETER T.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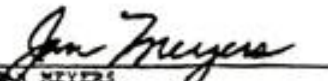

RONALD V. DELLUMS


JOSE E. SERRANO


BENJAMIN A. GILMAN


GARY L. ACKERMAN


TOM LANTOS


JIM MEYERS


KAREN L. THURMOND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News Coverage Service • New York

Committee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rteenth Session
248th Meeting (PM)

WOM/721
27 January 1994

EXPERTS AT COMMITTEE ON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URGE JAPAN NOT TO IGNORE LEGACY OF 'COMFORT WOMEN'

Japan must not close its eyes to the legacy of "comfort women" who it forced into prostitu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expert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ressed this afternoon as they examined Japan's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e expert emphasized that women who had suffered such exploitation should not be asked to seek justice on a case-by-case basis as that would re-traumatize them. Salma Khan, expert from Bangladesh, exhorted Japan to address the exploitation by Japanese men of women from other Asian countries. "Japan must meet its commitments to the women of Asia", she said.

Japan's report clearly showed that development did not equal equality, another expert stated. That country fell behind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number of women who held high-level decision-making posts. She called on Japan to take steps to redress that situation by introducing such measures as quotas.

Nobuko Matsubara, Director-General of the Women's Bureau of Japan's Ministry of Labour, expressed her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roportion of women filling high-level government jobs and managerial posts in the private sector had been increasing, but greater progress was necessary. Although Japan had a long way to go before women achieved full equality, she said, women could now more freely choose their way of life than in the past. Their educational level was equal to men, and de jure equality had almost been attained. However, deeply rooted stereotypes about women's roles caused persistent problems.

The Committee will meet again at 10 a.m. tomorrow, 28 January,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Japan's report.

(more)

○... 「나눔의 집」장신대 할머니들에게 최근 현 ○...
○... 해탄 건너에서 세밀선물이 한구름이 전해졌 ○...
○... 다. 일본의 한 잡지에 게재된 이들의 기사 ○...
○...를 읽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사죄의 편지 40 ○...
○...여부와 상금 1백만엔을 보내준 것이다. ○...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사함으로서
직업으로 승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살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 없습니다. 전정치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리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저는 절정을 모르는 세미지만 우리 서로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서투른 한글로 쓴 죄송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건강하고 행복은 기도하면서
이로써 끝냅니다.

◇ 2004년 12월 10일 ○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일본의 격주간잡지 「사피오(SAPIO)」에 「중군위안부의 심적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경제대국인가」라는 3쪽면의 특집기사가 실린것은 지난10월, 필자는 일본에서 손잡이는 저명 언론인 노부히로 오치아이씨(落合信彦)로 그는 이 글을 통해 지난4월 서울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때 5명의 정신대입양녀들에게서 정한 들은 중군위안부의

상상을 생생히 고발하고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전후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군은 처음에 동원한 대춘여성들의 7-8명이 매독에 감염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외지파견 군인들이 급증, 대춘여성들만으로 감당할수 없게되자 조선동 식민지의 일반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드는 「악마의 계획」이 탄생했건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인간
의 인생을 망쳐버
린 중죄를 짓고도
보상 및 참된 사
죄를 하지 않는다
면 일본은 유아적
민족으로 낙인찍
혀 영원히 미움받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직
토 나치의 잔혹성
을 사죄하고 새로
운 피해자를 발견
했을까 보상하
고 있는 독일과 88년
전쟁 당시 일본계
사람들을 강제수
용소에 이주시킨
사실을 사죄·보상
한 미국처럼 우리
는 할수 없는가」
라며 「문제는 일
본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양심」이라
고 역설했다.

의가 이 기사가 보도
되자 노부히코씨
의 주장에 뜻을
같이하는 20~30
대 젊은 독자로
부터 수십종의 권
지와 성금이 쏟아
졌고 「사피오」편
집부는 이를 모아 지난5일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한 회사원은 『지금까지』

외안부는 모두 일관된 불신을 받았다. 알맹이 없는 사실의 말보다 관련 공식문서를 공개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한국정부가 지금한다는 생체조직비 한양분'을 계산해 자신의 말과 의 절반 이상을 보내왔다.

한 여성은 「 많이 들어온 문제이지만 새한 그 회의 길이와 일본측의 변방스러 움에 눈물을 흘렸다. 정부 에 말이나 돈을 초월한 도덕적 해결을 요구하며 개인 적으로도 일본인의 한사람 으로서 할수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적고 있다.

본 실험보통의 양쪽을 보
도 양쪽자가 있거나 하인
그리고대양에서 양쪽하고 있
는 양쪽자, 양쪽양쪽 양
쪽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양쪽 양쪽 양쪽 양쪽

할머니들에게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잊새대를 대신해 사죄하는 이들의 진심어린 편지글들이었다. 할머니들은 「바람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일본 젊은이들을 한 군으로 일온것 같아 이보다 더한 세말 선물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대고통 해결없이 어찌 경제대국이 가

정신대의 퇴락한 현

우리가 풀어주자!

Korea Times

(A 2)

1994년 2월 28일 (월요일)

The Korea Times New York

「정대협」 활동기금 모금 캠페인

각계서 동참 호응높아

뉴욕한국인보사와 공동으로 미동부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정신대의 피맺힌 한, 우리가 풀어주자」는 취지하에 본격 전개하기 시작한 기금모금 캠페인에 한인들이 뜻을 같이하기 시작, 이 운동에 대한

많은 정반이 예상된다. 협의회가 금년 「인권의 해」를 기해 한국인과 면모 및 인연회복이 걸려있는 이 문제와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취지에서 23일부터 전개하기 시작한 첫 날부터 이 운동에 한인단체

및 업소, 일반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24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운동에는 뉴욕한국인보사와 경로회관 노인회가 자발 참여해 모은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23, 24일 야마 2천1백64달러161센트가 협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총 1천645달러161센트에

이어 24일에는 엘리트 아카데미 회원 대표 권양대씨가 3백 달러, 머시칼리지 김종룡 교수와 퀸즈 프린팅 대표 김기호 의 등 2인이 각각 1백달러씩의 성금을 정대협에 전달했다.

「정대협」이 감당할 한인사회 몫사업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는 한인들의 의식속에 이 문제가 만드나 해결해야

한 숙원사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뜨거운 동참 의지를 요망했다.

정대협은 지속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앞으로 ▲가해자 처벌 ▲각국 희생자 및 활동대표 초청 국제 공청회 ▲미주대 가해자 발굴 ▲관련 국제모임 상대 로비강화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각 기관 및 업체, 일반인들의 한인사회 행사시 모금 동참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노인 및 여성단체를 통한 가두모금, 교계중심 디너파티 등을 계획한 계획이다.

송금에 대한 문의 및 연락처 :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 Inc., P.O. Box 38, Little Neck, N.Y. 11363, 전화 (212) 689-4113, 679-3482.

미동부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The Korean-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 Inc.

P.O.Box 38

Little Neck, NY 11363

(212) 689-4113

대책협의회 실행위원장단

기획위원회

황 미 풍
김 경 자
김 영 호
김 현 숙

홍보출판위원회

황 현 주
그레이스강
김 민 용
윤사우열

국제 및 북미주변지역위원회

김 종 원
박 예 원
김 효 신

2세관련 위원회

최 노 라
박 민 희
민 홍 식

후모비 및 무궁화회관련위원회

이 강 혜
임 영 민
독 고 근
박 창 식

종교단체위원회

안 창 의
권 영 제
김 창 준
이 병 준

문화예술위원회

김 정 기
박 상 희
박 윤 숙
김 혜 연
주 욱 근

연구교육위원회

김 광 희
이 모 세
변 천 수
민 병 김
강 석 태

법률위원회

김 용 찬
정 진 우

재정위원회

고 희 숙
한 문 수
박 근 순

미정대협: 22594

수 신: 귀하

제 목: 정신대문제 해결위한 기금모금 협조의 건

75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가 문안드립니다. 언 땅이 마침내 녹고 메마른
가지에 드디어 물이 트듯이, 49년간 묻혀있었던 정신대의 '피맺힌 한'이
한국인 시민단체는 물론 UN과 교계와 세계인권단체들의 힘찬 활동으로
한가닥씩 풀려나가는 기적이 연속되는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93년 8월 일본은 국내외의 강력한 활동, 숨겨는 자도발굴, 탄원서명운동과
국제여론에 못이겨 정신대 조직, 강제연행, 수송, 운영과 처리에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입술' 사과까지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일과는달리 일본도 비준한 '국제법'과 '강제노동
조약'에 명기된 강제연행과 계획적 성노예화한 범죄자 처벌, 적절한 배상과
기념관및 연구재단건립엔 아무런 언급이 없는채, 인권을 중시하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 갖은 수단 다해 로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동부 정대협에서는 일본의 UN상임이사여부가 결정될 '95년
UN총회전 해이자, '가정의 해'로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문제가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94년도를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다시엿을 기회로보고,
아래와 같은 중대한 활동들을 성과있게 펼치기 위해 '10만불 활동기금모금'을
하오니 '민족의 한'을 푸는 뜻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하시는 사업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행위원 일동 드림

- 주요활동: * 국제여론 환기위한 6개국 각국 정신대생존자및 활동대표
초청하는 '국제 공청회'개최
* 각종 영문자료집및 News Letter 발간
* 국제법, 강제노동법과 UN인권선언 행동지침에 근거한
정신대 가해자 처벌위한 법정투쟁
* 북미주내 생존자, 일본인 가해자및 정신대관련자로 발굴,
연구및 홍보
* UN위시한 각종 국제 인권, 여성회의에 대표파송및 로비활동
* 정신대관련한 영화, 연극, 조각, 음악및 예술활동후원

연락처및 보내실곳:

The Korean-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 Inc.

P.O. Box 38

Little Neck, NY 11363

(212)689-4113, 679-3482, Fax (212)784-9569

정대협, 「특별강연회」 개최

신혜수 국제위원장 초청 "국제여론 호소 큰 관심얻어"

미동부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1일 3·1절을 기념,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개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시켰다.

정대협의 뉴욕한인 YWCA, 가정문제상담소, YKAN과 공동으로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오후 7시 마련한 이날 강연에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신혜수 국제위원장이 특별연사로 참석,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활동해 온 결과를 보고하고 현황을 타진했다.

신혜수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본 정신대문제 현황"을 주제로 가진 이날 강연에서 "국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대협의 활동이 예상외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고 보스니아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강간과 연결되어 국제사면기구 회

의 및 제네바 UN 인권위원회 회의, 네덜란드 여성문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 이들이 크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 문제와 관련, 현 본국정부가 지난 65

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배상요구를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는 입장으로 있어 정대협 같은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지 않을 경우 배상문제나 가해자 처벌문제 등을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국내 정대협의 해외 한인단체들이 열심히 이 운동에 참여, 국제적 우호를 일으키는데 적극 도와달라"며 특히 UN 본부가 있는 뉴욕교포들의 대 UN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신 위원장을 당부했다.

황미관 정대협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김광희 가정문제 상담소 이사, 홍인숙 YWCA 총무, YKAN 박민희씨 등 3인의 축사를 끝으로 시작, 독립선열과 정신대 희생자를 위한 묵념, 실행위원 김영호 목사의 활동경과 보고, 이병준 교협대표 기도, 기금모금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대협은 이 자리를 통해 활동기금 모금 캠페인이 각계의 호응 속에 뜨겁게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3천1백64달러11센트에 달하는 모금현황을 발표했다.



▲ 신혜수 한국 정대협 국제위원장이 1일 미동부 정대협이 개최한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서거하신지 40년 만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AN APPEAL TO THE UNITED NATIONS

We, the Korean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ncerned American friends, are shocked by the recent revelations of the extent of cruelty and suffering inflicted on some 200,000 young Korean women as well as other Asian women who were forced into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during the World War II.

We are even more disturbed by the present Japanese government's continued refusal to fully disclose all the facts concer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ole in this travesty and to grant just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thes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ye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e nerve to ask the UN to make it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We believe the United Nations should not allow any nation to become a new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unless, and until, such candidate nation really believes in and respec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making serious efforts in redressing its pa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Unfortunately, Japan has been footdragging in this regard. Unlike Germany, Japan has not paid any compensations to individual victims of its genocide policy--nor has it prosecuted any war criminals on its own accord.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mber nations to reject any attempts by Japan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until it has fulfilled its moral and legal obligations to the victims of its military aggression in Asia--especially to those women victims of its military sexual slavery policy. We also urge the UN to set up a special UN Tribunal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redress th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of Asian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during WW-II, so that the full truth is revealed, and such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Signature

Name

Address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11. _____

Please return signed forms to Korean American Coalition on Junshindae, Inc.
276 5th Ave., Suite 806, NYC 10001 (212) 679-3482

We dem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top challenging the United Nation's capacity to deal with this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first of all, disclose the full fact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that it committed agains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in Asia and other regions; punish the criminals like the Germans who are still punishing the Nazi criminals; and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that includes compensation with sincere apology and preventive measures such as amendment of the text books, erecting the monuments and etc. for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Unless the Japanese Government takes full legal responsibility for their crimes, we believe that Japan is not qualified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RAMADA® HOTEL

LA GUARDIA AIRPORT

90-10 Grand Central Parkway
East Elmhurst, New York 11369

**YOU'RE SOMEBODY SPECIAL
AT RAMADA**



RAMADA® HOTEL

LA GUARDIA AIRPORT

Commissions paid promptly.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For Reservations Call:

1-718-446-4800

or

1-800-228-2828

정신대 희생자들의
영혼에
삼가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고희숙

George Taylor

정신대 생존자 할머니들의 여생에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기원하며
모든 진실이 밝혀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낙원장로교회

목 사 : 임수식

Nak Won Reformed Church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목사실 : (718) 482-8751

교 회 : 482-7788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욕성서교회

목 사 : 김상모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N.Y. (516) 243-5683

1201 Carll's Straight Path

Dixhills, N.Y. 11746

정신대 희생자들의
영혼에
삼가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뉴욕실로암장로교회
목사 : 김종덕 137-70 Northern Blvd.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Flushing, N.Y. 11354
(718) 463-9013

정신대 생존자 할머니들의 여생에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기원하며
모든 진실이 밝혀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뉴욕한샘교회
목사 : 차풍언

Hansaem Korean
Community Church
25-33 154th St.
Flushing, N.Y. 11354
(718) 359-1526, 463-9882

전쟁 강제 위안부들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보상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리아 식당
박형묵 대표외 종업원 일동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도 한방원

JIN DO NATURAL HERBS INC.

139-15 Franklin Ave., Flushing, NY

(718) 961-7167

우리 2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만행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주 자동차 바디

(718) 899-5693

인류사에 오점을 남긴 일본은
역사앞에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동서교육센터 원장 변천수
(718)898-0855

거짓속에 감추어진
억울했던 역사가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이화웨딩프라자
EH WHA WEDDING PLAZA
36-34 Union St., Flushing, NY
(718) 886-2327

우리 2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만행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신정

Shin Jung Restaurant
136-33 37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460-5026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욕중부교회 252 Horace Harding Exp.
목 사: 이 철 Little Neck, N.Y. 11362
The Korean Joong Bu (718) 279-2757,8
Presby. Church of N.Y.

정신대 생존자 할머니들의 여생에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기원하며
모든 진실이 밝혀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은혜장로교회

목 사 : 이승재
The Eun Hae Presby.
Church

33-37 Farrington St.
Flushing, N.Y. 11354
(718) 461-4657, 7654

정신대 희생자들의
영혼에
삼가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배한의원

원장 배명희

(718) 461-0345

정신대 희생자들의
영혼에
삼가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뉴욕동양제일교회

목사: 김일광

The N.Y. Dong Yang First
Church

50-43 97th Pl.

Corona, N.Y. 11368

(718) 760-5346

우리 2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만행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신광교회

목사: 한재홍

The Shin Kwang Church
of N.Y.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 423-3733, 4411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욕성결교회

목

사: 장석진

333 Arden Ave.

S.I., N.Y. 10312

(718) 948-0339, 0292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잭슨하이트연합감리교회

목

사: 김현준

81-10 35 Ave.

Community United Methodist Jackson Heights, N.Y. 11372

Church in Jackson Heights (718) 446-0690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욕목양장로교회
목 사 : 송병기
The Moak Yang Presby.
Church in N.Y.

40-05 Skillman Ave.
L. I. C., N.Y. 11104
(718) 361-9199

**정신대 희생자들의
영혼에
삼가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뉴욕베데스다교회
목 사 : 김원기
The N.Y. Bethzatha of
Church of God

85-20 57th Ave.
Elmhurst, N.Y. 11373
(718) 478-8900

인류사에 오점을 남긴 일본은
역사앞에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보석전문가 김남표의

보석사랑



KIM'S JEWELRY

46W. 47th St., 2nd Fl.

212-840-3412

거짓속에 감추어진
억울했던 역사가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스마일은 여러분의 상암약국입니다"

스마일 약국

약사 : 장 기 로

136-73 41ST AVE. FLUSHING 11355

41AVE MAIN ST & 41ST ST. FLUSHING

(양자강 건너편)

전화 (718) 358-3800/ 358-3801

우리 2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만행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김 꽃 집

KIM'S FLORIST

99 Nassau Ave. Brooklyn, N.Y. 11222
(미드타운 터널에서 10분 거리)

(718) 389-1311 389-1367(낮)
(718) 961-7296(밤)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엘문도 가구

주일은 쉽니다.

● JACKSON HTS ●
80-20 ROOSEVELT AVE.
(718) 424-8389

● BRONX ●
867 LONG WOOD AVE.
(212) 893-0900

뉴욕

CCB

영어 연구원

손경탁 원장

정신대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
반드시 풀어지도록

온 교포 2세와
1세가 함께
온갖 노력 할 수 있기를

(718) 424-2828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아과 전문의 · 소아혈액학 전문의

정 인 국 소아과

(718)961-2600

**정의와 평화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능에 감탄하고 가격에 만족을 드립니다”

리사비퍼

BRONX
2255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3
Tel. (718) 364-8888

QUEENS
34-57 Junction Blvd.,
Corona, NY 11372
(718) 899-0040, 899-2873
Fax. : (718) 397-5389

L.I.C.
27-18 Bridge Plaza South
L.I.C. NY 11102
(718) 392-4042